

흰모시와 지휘자 어머니

조중행 (69 년)

얼마 전 어머니의 35 번째 기일이 지났습니다. 벌써 35 년- 여전히 '엄마'라는 단어가 더 편하지만, 이제는 그 크기를 짐작하며 '어머니'라 불러 봅니다.

1923 년 어머니는 숙명여중을 다니던 열다섯 살의 어린 나이에 한일 병합 후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신 내 증조부와 집안 어른들의 결정으로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아버지에게 가마를 타고 시집오셨습니다. 작은 체구의 단아한 조그만 깨끗한 얼굴의 여인, 세상이 달랐다면 아마 배우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.

그러나 평생 쪽 진 머리에 비녀를 꽂고, 흰모시와 옥양목 두루마기, 전통 한복만을 고집했던 지극히 작고 고루한 양반 댁 여인. 그 단정한 뒷모습은 지금 손주를 데리고 걷는 내 딸의 뒷모습 속에서 문득 되살아 나곤 합니다.

한문에 능하셨던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여러 제사 때 지방을 직접 쓰셨습니다. 내가 미국으로 건너온 뒤에도 항공엽서로 그 궁체의 한글 편지를 자주 보내셨고 지금도 잉크 향기 속에 배어 있던 그 절제와 정성은 내 서랍 속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.

아버지는 경의전을 졸업(1930)한 소아과 의사로, 늘 일에 쫓기시던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그녀의 삶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이었습니다. 여섯 남매의 교육, 결혼, 분가, 매달 찾아오는 4 대 제사, 13 명 대가족의 살림, 선대로부터 내려온 선영의 관리까지, 집안의 모든 재정과 대소사는 그 작은 체구의 손에서 냉철하게 관장되었습니다.

이문열의 소설 속 '선택'이 그러했듯, 그녀는 전통적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현대적 경영인의 권한을 누린 여인이었지요. 다시 태어나도 남자의 고단한 생애보다는 가정을 관장하는 여자의 삶이 낫다고 담담히 말하던, 자신의 선택을 긍정적인 강한 의지- 그 말은 어머니의 신념이자 생애의 이력서였고, 고난 속에서의 깨끗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.

여섯 남매 중 넷을 서울대학교에 보내고 의학, 물리학, 화학, 약학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이른 결혼으로 형제 중에 자신만 못 이룬 고등교육에 대한 갈망이었을 지도 모릅니다.

가장 사색적인 기억은 70년대 미국 서부의 버클리 캠퍼스에서였지요. 가족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던 칠십년대 말 어느 날 uc 버클리 캠퍼스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던 장손녀와 교정을 산책하시던 어머니를 본 미국 학생들이 손녀에게 물었습니다. “어느 나라의 프린세스냐고.”

흰모시 한복과 쪽 진 머리 하늘색 고무신, 그 모습은 낯선 땅 위의 한 동양의 프린세스였고 전쟁과 격동의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 내면서 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끝내 집안을 지켜낸 한국판 ‘스칼렛 오히라’ 같은 사람이었습니다. 1990년, 여든 살 생애의 위중한 그 순간, 마지막으로 정성껏 써 놓았던 한글 궁체의 반야심경, 덧없음 속에서도 진실을 구했던 그녀의 마지막 성찰이었을까?. 그렇게 심곡서원 옆 한양 조씨 덕 용인의 흙으로 돌아가신 어머니.

이제 꿈속에서도 희미해진 어머니 모습은, 고단함 대신 한없이 깨끗한 흰모시옷 같은, 빛나는 지휘자의 삶으로 나에게 기억됩니다.

정말이지, 돌이켜 보면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멋진 생이었지요.